



남원시, 박종군 장인 옷칠 목공예대전 대회장재위촉

남원시는 13일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이하 대전) 대회장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장도장(彫刀匠)인 박종군 장인을 재위촉했다. 박종군 대회장은 제23회 대전부터 대회장을 역임, 오랫동안 쌓아온 대전 운영 경험과 전통공예 분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다. 목공예대전은 '옷칠'을 주제로 한 유일한 공예부분의 대전으로, 국무총리 훈격의 대상을 두고 전국의 많은 옷칠 목공예인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올해 27회째를 맞는 이번 대전의 접수 기간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옷칠목공예·갈이 2개 분야 출품이 가능하다. 출품작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5월 13일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포함하여 총 37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회장은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 국내 최고 권위인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의 대회장을 다시 한번 맡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귀중한 무형문화 유산의 부흥을 위해 공예인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스마트 통합돌봄도시 기관 연계 간담회

정읍시는 지난 12일 시 컨퍼런스센터에서 스마트 통합돌봄도시 기관 연계 간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스마트 통합돌봄도시 사업은 스마트 도시와 건강 도시의 개념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 보건의료와 통합 돌봄서비스를 접목해 스마트 통합돌봄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중앙대학교로부터 정읍시가 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앞으로 돌봄 환경에 대해 더 나은 방향을 기획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 내 민간기관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석해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통했다. 또한 스마트 통합돌봄도시 구현을 위한 ICT플랫폼인 CARE-Net(케어넷)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실제 사용 방법을 소개해 스마트 돌봄 서비스의 연계 과정을 이해시키고, 실제 돌봄서비스 제공 현장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수 시장은 "이번 간담회가 수요자 중심의 노인 돌봄의 시각을 풀고, 나아가 노인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은행, 김제시에 장학금 1억1000만원 기탁

김제시립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13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지역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학업 전념을 위해 장학금 1억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제시립장학재단 이사장인 정성주 시장을 비롯해 전북은행 전상익 부행장, 김법식 김제지점장, 서성금 부지점장 등이 참석,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북은행은 김제시립장학재단과 전북은행 김제시지부가 체결한 금고 협약에 의해 2023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장학재단 기금을 운용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번 기탁금을 포함해 협약기간 동안 매년 1억 1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장학재단에 후원한다. 전북은행 김제시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전상익 부행장은 "김제시의 우수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라며, 폭넓은 장학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립장학재단 정성주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해마다 장학금 조성에 참여해 준 전북은행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제=곽태 기자

“법전원의 발전은 곧 전북대의 발전”

정영선 법원위원장, 전북대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발전기금재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 오봉 총장과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88학번 졸업 동문이기도 한 정영선 위원장은 신입 법전원장 지난 2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전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앞장 서기로 마음먹었다. 정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 교육을 강조했다. 다원화·국제화로 무장한 법조인을 키워내고자 동북아법을 특성화해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영선 위원장은 "법전원의 발전은 곧 전북대의 발전과 깊이 연계돼 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후배들을 위한 법전원 동문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격려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을 기반 삼아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익을 우선하는 법조인으로 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부금은 정 위원장의 뜻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법전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개최 등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박기범 교수, 국어문화회 신임 회장 취임



전주대학교 박기범 교수(국어교육과)가 국어문화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고 전했다. 국어문화회는 1965년 지역에서의 학문연구 심화 및 활성화를 목표로 전북지역 국어국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이후 전국적인 학회로 성장하면서 국어학, 국문학(한)국어교육학 분야 등에서 회원 상호 간 학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국어문화'를 연 3회 정기 발행하고,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도 개최했다. 박기범 신임 회장은 "지난 60년 동안 학술지 84집을 발간하면서 국어국문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유서 깊은 학회의 회장에 맡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임기 동안 해외 학자들과의 공동 콜로кви움, 국제학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어국문학 연구를 이끄는 학술 단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전춘성 진안군수는 13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국회의원, 단체장, 유명 인사들이 고향사랑기부 참여 인증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자매도시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김찬진)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이수희)·은평구(김미경), 부산광역시 북구(오태원), 대구광역시 남구(조재구) 등 4개 도시에 기부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자매도시끼리의 결속을 다지고 상호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진안군을 비롯한 진안군 자매도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도동동, 도로공사 남원지사와 복지향상 협약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선자)은 13일,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병진)와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추진한 도동동은 취약계층 행복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양 기관의 상호 협의로 추진 했으며,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이병진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동동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도동동장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에 감사를 드린다면,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기관 상생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결혼이민자 취업·국적취득 여부 자녀 현황 조사

남원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 및 국적취득 여부 자녀 현황 등을 조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월 말 기준 남원시 다문화가족은 전년 대비 97가구 증가한 613가구/2,273명이고 자녀 수는 1,08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결혼이민자 중 취업한 결혼이민자는 250명(42%), 국적취득 결혼이민자는 347명(58%)으로 파악되었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해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용으로는 △신규입국자 19명을 비롯한 초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가족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한글교육 교육 △자녀 양육 및 가족관계 상담 등 안정적인 지역 정착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요구도 조사를 통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연계에 힘을 쓰고 있으며, 국적취



득을 위한 교육과 수수료 지원 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기초학력 능력을 높이고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학습지원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로코칭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의회,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지난 12일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에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장정복 의장은 임영욱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보건안전활동 등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장정복 의장은 특별회비 전달식에 이어 적십자 관계자들과 기부문화 확산 봉사활동 활성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후,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적십자사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며 "소외된 이웃이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할 곳이 없는지 늘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대강면, 순창 팔덕면과 자매결연 체결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지난 12일 순창군 팔덕면(면장 박영민)과 상호 우의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지역은 행사 및 현안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특히 대강면은 다가오는 제94회 춘향제가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행사에 열변 호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춘향제의 대표 콘텐츠 대동 길놀이에서, 자매결연 지인 팔덕면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표 남원시 대강면장은 "대강면과 팔덕면 간 자매결연 체결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곰소식자재, 김제시에 라면 200박스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주)곰소식자재(회장 김상호)가 13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달라며 라면 40개입 200box(44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상호 대표는 "물가상승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라면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라면을 기부해 준 (주)곰소식자재에 감사드리고 기부해 주신 라면은 기탁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주)곰소식자재는 김제시 황산면 공귀밭로 444-12에 위치해 있으며, 아예·정육·수산·공산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

전북광역새일센터, 7개군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4월부터 도내 7개 군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오피스행정사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월 2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평균 2개월 동안 12시간으로 진행된다. ITQ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뿐만 아니라 1대 1 맞춤형 상담, 이력서 컨설팅, 동행 면접 등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유관기관 및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협력망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취·창업 의지가 분명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과정당 면접을 통해 15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교육생은 예치금 10만원을 내고 수료 후 5만원, 6개월 이내 취·창업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정은성 기자